로컬플러스

태인 명봉도서관 '행복한 책 나눔 벼룩시장' 운영

태인 명봉도서관(관장 김미란)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오는 11일(오후 12시~오후 5시) '행복한 책 나눔 벼룩시장'을 운영한다.

명봉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독서 문화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이용자들과 지역 서점 및 관련 출판사에서 기증 받은 도서를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는 행사로, 희망자는 1인 당 총 3권씩 원하는 도서를 가져갈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다"며 "아름다운 책과 향기로운 차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해경 공직기강 일제점검

부안 해경서(서장 조성철)가 최근 감사원의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일선 해경 센터(출장소)와 경비함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조하려고 공직기강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 해경은 이달 한 달 동안 기본근무실태와 복무위반 및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리행위와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유언비어 유포, 음주운전 행위 등 공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청탁금지법 관련 법령 숙지 및 교육 실시 여부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원천적으로 차단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관리 실태와 사고 다발 해역, 위험구역에 대한 순찰 등 해양사고 예방에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근무 소홀, 무사안일, 복지부동, 의무경찰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펼칠 방침이다.

조성철 부안해경서장은 "어수선한 국정분위기에 내부 공직기강 확립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집

개별 방문 후 현장 점검 실시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 4일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개별 방문하여 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김제경찰서는 이번 점검에서 위험에 처한 어린이가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면 파출소나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교양했다.

또 이번 점검을 통해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촉 처리 하였으며 아울러 오·훼손 표지물 점검을 통해 시인성을 확보하여 아동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지킴이집 관계자는 "우리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는 소명감으로 아동이 위급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지킴이집을 수시로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아동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황대규 김제경찰서장은 "일제 점검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아동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등·하굣길 범죄 등 각종 위험 징후 시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 약국, 문구점 등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김제관내에는 61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고유 감성담은 표지판 필요"

정읍시, 대표음식 개발 음식점 문화수준 향상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정읍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표음식 개발과 음식점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용역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수인 한식조리학과 교수)은 대표음식 개발 과업 수행 관련 진행결과 등을 보고했다.

시는 대표음식 개발과 관련, 용역기관을 통해 정읍 특산물을 이용한 '쌍화차삼합'과 '사과맥적', '귀리떡갈비' 3종의 메뉴를 개발했다. 이후 시연과 집체교육, 사업장별 메뉴에 따른 현장방문 맞춤교육 등을 통해 개발된 음식 레시피를 대표음식 전문점(3개소)에 보급했다.

시는 특히 대표음식 브랜드명을 '정읍지역 고유의 감성과 향수'를 담은 '단풍미락'으로 선정 한 바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와 같은 그간의 진행결과 보고와 함께 브랜드명에 맞는 대표음식 전문점 표지판과 지정증 안(案)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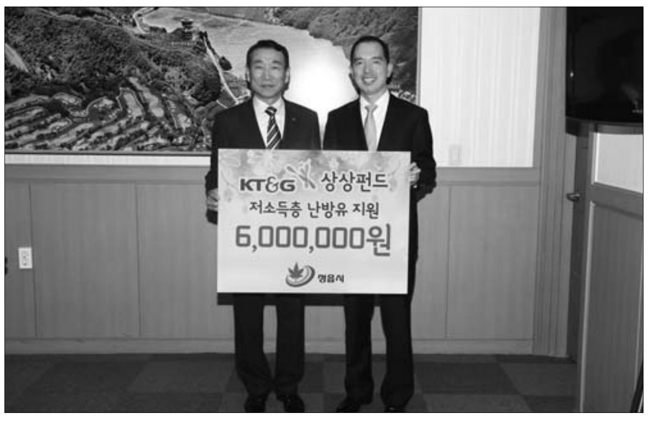
이어 대표음식에 대한 영양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귀리떡갈비의 경우 귀리가 첨가됐을 때 씹음성과 탄성, 응집성이 높아져 전체적으로 질감이 우수했다. 특히 귀리떡갈비와 쌍화차삼합은 기존 떡갈비와 삼합보다 콜레스테롤과 나트륨이 낮게 나타나 앞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회에서는 또 정읍 맛집 7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및 위생적인 상차림개선 등 업소별 맞춤형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어졌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대표음식 전문점 및 정읍맛집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과 소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이달 중순 경에는 대표음식 전문점 및 정읍맛집에 지정증을 수여하는 한편 대표음식 전문점 현판제막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선정된 3종의 대표음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만들어 가고 업계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음식을 매개로 한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와 정읍 음식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는 이날 기부금은 저소득층 30여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KT&G 전북본부, 정읍시에 기부금 기탁

'상상펀드 사랑나눔' 600만원

KT&G 전북본부(본부장 고경찬, 이하 전북본부)는 지난 4일 '2016 KT&G상상펀드 사랑나눔' 기부금 600만원을 어려운 계층의 난방비로 써달라며 정읍시에 기탁했다.

시는 이날 기부금은 저소득층 30여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경찬 KT&G 전북본부장은 "임직원들이 합심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계층의 난방비로 전달해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 한다"며 "이번에 전해드린 난방비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모아준 고경찬 KT&G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난방비는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상상펀드'에서 전액 지원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의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해 조성한 KT&G만의 독창적 사회공헌 기금으로,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KT&G 만의 차별화된 기부문화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장애인부부의 쓰레기 치우기와 주변 환경정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김제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개선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해소

김제시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한, 박경준 이하 협의체)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수년동안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부부의 쓰레기 치우기와 주변 환경정리, 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민·관 협력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맞춤형복지팀과 협의체 위원, 새마을부녀회, 복지기동대, 복지통장, 적십자봉사대,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톤 분량의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와 방역, 노후 전기 설비와 도배·장판 교체 등을 실시했다.

공적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던 이 가구는 복지통장의 사각지대 발굴로 지난 10월부터 교월동 맞춤형복지팀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의류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이불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였으며, 봉월교회에서는 싱크대를 설치해주고, 제일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도 엄두가 나지 않아 나서지 못했던 일들을 동협의체의 주도로 해결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는 이 가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경준 위원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는 교월동을 만들기 위해 흔쾌히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청 벼고을팀 시상금 기탁

청원체육대회서 우수 성과 거둬… 장학사업에 보탬되도록

김제시청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 펼쳐진 청원체육대회에서 단결된 마음으로 모든 경기에서 시상을 한 벼고을팀은 지난 4일 시상금 120만원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했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시청 청원체육대회 벼고을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유통식품과,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죽산면, 부량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직원들이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장학금 12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시청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심신의 피로를 털어내고 충전을 하자는 의미로 개최한 체육대회에서 벼고을팀으로 참여한 직원들은 시상금이 "미래의 김제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에 의미있게 쓰여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들로 인해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07년 8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전국 최고의 29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및 장학금 지원 사업, 지평선학당 운영 사업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새마을부녀회, 김제사랑장학재단에 1백만원 기탁

지역발전위한 인재양성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건식)은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 음식부스 운영단체인 백구면 새만을부녀회(회장 송연순)는 지난 4일 시장실에서 운영수익금 1백만원을 김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백구면 새마을부녀회는 백구면민의 날에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음식부스 무료봉사,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행사 참여, 저소득층 김장 담아주기, 청소년 선도 캠페인 참여, 환경정화활동등 이웃사랑 실천 및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단체이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송연순 회장은 "그동안 지평선축제 음식부스운영 수익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자금으로 사용하여 왔지만, 이번 음식부스 운영 수익금의 일부는 더 나은 김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지역인재들을 위해 뜻 깊게 쓰고 싶어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건식 김제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기탁금은 김제의 희망을 열어가는 장학사업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답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학교 지킨다"

부안경찰서와 명예소년단원 20여 명 완산 경찰학교 방문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지난 3일 명예경찰소년단원 20여 명과 함께 완산 청소년 경찰학교에 방문, 명예경찰소년단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찰직업 체험활동을 벌였다.

이날 소년단원들은 과학수사(지문채취), 사격(BB탄), 경찰장구(무전기·수갑·삼단봉 등) 등 다양한 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강의를 통해 또래 지킴이로서 역할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겼다. 소년단원 김모 양은 "TV에서 경찰관이 사용하던 무전기랑 수갑을 직접 사용해보니 신기하고 진짜 경찰이 된 기분이다. 앞으로 학교에 가면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친구들과 학교를 지키겠다"라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

강현신 경찰서장은 "명예경찰소년단원들이 학교 내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또래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내순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종자생명산업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단기 교육생 모집

김제농기센터 3차에 걸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생명연구단지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기초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생산 단기교육 과정을 2차에 걸쳐 성황리에 마치고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한 종자생산 단기교육과정(3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종자생산 단기교육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11월16일부터 12월01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회 40시간 동안 종자생산의 실질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견학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종자생산 단기교육 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종자시장 및 사업현황, 종자관련 제도, 교양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작물교육으로 종자기초생리, 재배, 병해충방제, 작물육종, 토양관리 등으로 진행되며 종묘회사 견학 현장교육도 실시된다.

신청대상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및 일반 시민이며 수강신청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에서 11월 14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력육성담당(☎ 540-4510~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 종자 산업을 이끌어 나갈 종자생산 단기과정에 김제시 관내 농업인 및 일반 시민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